

### 전국지역청장년회 협의 회의

지난 11월16일(始組·邦中公 秋亭 前日) 오후 8시 30분, 능동재사에서 지역 청장년 회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장년회 회의를 개최했다.

이날 권영순 영주청장년회장은 지난 4월 28일 영주에서 개최된 제 25회 전국체전행사에 지역청장년 회에서 많이 참가해 훌륭한 행사가 되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며 청 년회의 홍보관계는 대중원카페(이 메일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다.

전국청년회 회장 초안은 前 능국 회장 권기덕씨가 작성해 설명했으 나 2014년도 대전 체전행사에서 회 직을 확정키로 잠정결의했다.

이어서 권용기 대전청장년 회장은 인사에서 제26회 안동권씨 전국

청장년회문화축제 행사는 2014년 4 월 27일(일 오전10시~4시)대전시 중구 뿌리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경기 종목 내용 및 요령은 추후 참가팀에 통보하며 체전 참가신청에 회원명단 제출은 2013 년 12월 31일까지, 문화축제 홍보 책자 광고 희망자는 (042)522-8751, 010-4404-5400(회장) 연락 바란다 고 공지했다.

이어서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에서 올해 제25회전국체전 행사사 권영순 영주청장년회장 및 임원단 등의 훌륭한 체전준비로 성 대하게 개최된 것을 치하하며 명 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 체전에 많이 참가하여 알찬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권문중흥을



△11.16 능동재사에서 전국 청장년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 했다.

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 라고 당부했다.

기타토의에서 공지사향으로 권 범준대중원홍보부장이 지역각청년 회, 임원단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간 안동권씨 전국청년 체육대회를 통해서 권문의 대의적 인 홍보로 부각시켜준데 대해 감 사 드리며, 현재도 잘 진행하고 있

으나 더욱 권문의 발전을 위해 앞 으로 각종행사에 따른 팸플렛(홍 보책자) 체전행사 등 발간, 제작사 진 대중원에 제출해 검토 후 인 쇄하여 오류가 없도록 잘해 보자 는 취지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 랐다고 했다.

〈글: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: 권범준 기자〉

### 안동중친회 임원회의

안동중친회(회 장 권재주)는 지 난 2일 오전11시, 안동태화동 중친 회관 회의실에서 임원 및 운영위원 76명이 참석한 가 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. 권박사 무국장의 사회로



△안동중친회관 임원회의에서 권재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상례행사에 이어 권재주회장의 인 사말이 있었다.

이어서 오는 "2014년 갑오년안동 중친회신년회" 개최의 건에 대해 의논한 결과 △2014년 2월8일(토)

오전 10시30분△장소: 안동시민회 관대강당 중보 12월호에 안내(광 고)키로 결정하고 산회했다.

〈권혁세 기자〉

### 울산 원연회 야유회

지난 11월 3일 안동 권씨 울산 원연회는 권 만호 회장이하 회원 부 부동반 약3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연례행사 로 여수 아쿠아리움과 순천 자연생태공원을 관광하였다.



△울산 원연회가 순천 자연 생태 공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권응묵 총무의 사회 로 출정식을 시작했으 며 권만호 회장은 인사 말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과 회원 가족의 건강과 화목 을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권태철 재 무의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.

시간이지만 회원 상호간에 유대관 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원연회가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알찬 가을 야유회가 되었다.

〈총무부장 권응묵〉

### 울산 동구 중친회 야유회

지난 11월 10일 안동권 씨 울산 동구중친회는 권 혁성 회장이하 회원 부부 동반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화엄사와 하 동 최참판댁에 가을야유회를 다녀왔다.



△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울산 동구 중친회 회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권원기 사무국장의 사 회로 시작되었으며 권혁 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 뻐신데도 불구하고 참석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야유회를 통해 더욱 단합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. 이어서 권원현 고문의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.

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을정 취를 마음껏 즐기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 되었다. 〈권응묵 총무부장〉

### 서울 청장년회 월례회



△서울청년회 정기월례 후 좌담하고 있다.

지난11월7일 19시 동대문구 용두 동 대중원건물 앞 고기뽕년식당에서 회고문진, 권승우 수석부회장을 비롯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11 월 정기월례회가 개최되었다.

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태 사공 낭배에 이어 회장인사로 승 호 부회장이 대행하여 인사하였다. 이어 신입회원소개는 권경탁 산악 회 사무국장의 소개로 권기성(36 세, 북야공파, 현 출판사 교문기획 운영)등을 소개하였다.

공지사향으로 "시조는 추향에 많 은 참제 당부하고 아울러 전날 안 동능동재사(齋舍)에서 당무 회의 후 전국 청. 장년임원회의의 서울청

장년회대표로 회장단이 참석할 것 과 권영삼 초대회장께서 이날 18일 부로 서초동에서 양천구 신원로 신 정동389(남부빌딩213호)으로 이전 했으며 후사는 권혁조(36세,최운공 파,전서울산악회장)고문의 장남인 준희(하나은행재직)신랑과 며느리 는 이영희(서울대 법대졸, 행시 수 석합격하여 세종신도시 공정거래 위원회 사무관)으로 혼례일은 12월 14일(토) 정오에 강남구대치동 소 재 대치2동 성당"이라고 하였다. 이 날 축하의 화답으로 감사하면서 축 배제의로 "우리는 하나다" 구호하 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 월례회를 산회하였다.〈권범준 기자〉

### 마포중친회 고창 선운사 야유회

서울 마포중친회(회장 권승구) 는 지난 10월 27일 죽전 45명이 관 광버스편으로 전북 고창의 선운사 에서 야유회를 가졌는데 이날 목 적지로 가는 차중에서 권승구 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처럼 많은 회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 가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과 아울러 어느 단체든지 그 구

성원이 열심히 참석을 하며 날로 발전을 하게 됨으로 마포중친회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부탁 의 말이 있었다.

선운사에 도착하여 임구에 있는 산장회관에서 식사를 마친 후 선 운사의 부근 일대를 관광한 후 귀 경길에 올랐다. 〈권영관〉

### 권태복씨 서울특별시시장 표창장 받다

금천중친회 명예회장 권태 복씨(68, 안동, 33세 부호장 공파 22世)는 1990년부터 20 여년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와 사단법인 보원복지사업 회(구로구청 구민회관 內)를 설립해 매월 독거 노인들 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양식 (쌀)등을 지원하면서 독지 모범을 보여주었다.



이에 써는 평소 사회와 이웃 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생활로

경로 효 친의 전통 문화 를 계승 발전 시 키고 지 역 사 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다대해 지난 10월 2일 제17회 노인의 날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으 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. 〈편집부〉



담에서 북한 이 백두산 반 을 중국에 넘 기는 대신에 압록강에 있 는 50여개 섬 가운데 월랑

들던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상을 보 고 너무나 놀랐다. 중국 은(殷)나 라가 세운 기자(箕子)조선을 고구 려 발해의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 고, 한강유역까지 중국 땅으로 보 고 있었다.

우리역사에서 고조선, 고구려, 발해 역사가 없어지고 신라로부터 시작되면, 시간상 5천년이 2천년으 로 줄어들고, 공간상으로도 만주벌 판까지에서 한강 이남으로 축소되 는 기막힌 사연이다.

중국의 25왕조의 정사(正史)였 던 25사(二十五史)에도 고구려를 외사(外史)로 보았고, 중국 역사대 사전(2000년 판)에도 고구려는 한 반도 국가로 기술되었고, 종전까지 중국역사책에도 '이민족인 고구려 와 싸웠다.'고 기술되었다.

우리의 언어와 문화, 코리아의 국명도 고구려에서 나와 전 세계 바라보며 분단조국의 아픔을 느끼 기도 했다.

특히 이번 담사를 통하여 말만

몇 년 전 두만강 주변의 황일독 립군 활동무대를 돌아보았고, 며칠 전에는 백두산에서 압록강을 따라 지안 단통까지 답사하면서 북. 중 국경선과 고토 고구려의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분단조국의 현실과 중 국의 동북공정의 현주소를 보았다.

압록강은 총 815.5 Km로 국경이 직 접 본 벽찬 기쁨도 있었지만 북한 땅이 아닌 중국 땅을 밟고 가야하 는 분단조국의 아픔도 느꼈다. 단 통에서 백두산, 지안을 거쳐 굽이 굽이 흐르는 압록강을 따라 다시 단둥에 이르면서 주위 산들과 노랑 게 물들은 가을들판과 옥수수과 웅 기종기 모여 있는 조선족 농촌을 보면서 친숙한 우리나라 산촌과도 너무나 같았다.

압록강은 지금은 북한과 국경선 이지만 한때 번성했던 고구려의 생 명선이었다. 한강이 우리민족의 남 쪽지역의 천년의 애환과 문화가 이 루어진 지역이라면, 압록강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의 삶과 고난 등이 집결된 구심점이었던 곳이다. 압록강은 총 815.5 Km로 국경이 없는 강으로 북. 중이 같이 이용하 고 있다.

압록강의 강폭은 지류에 따라 달 랐지만 불과 10여 미터 국경을 접 한 곳이 많았다. 마음만 먹으면 보 트나 헤엄쳐서 언제든지 왕래가 가 능하였다. 그러나 강 건너 북한지 역은 주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유령의 땅으로 보였다.

해방 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회

### 괴운칼럼

### 고구려 유적지 답사를 하고

■ 괴운 권해조

몇 년 전 두만강 주변의 황일독 립군 활동무대를 돌아보았고, 며칠 전에는 백두산에서 압록강을 따라 지안 단통까지 답사하면서 북. 중 국경선과 고토 고구려의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분단조국의 현실과 중 국의 동북공정의 현주소를 보았다.

압록강은 총 815.5 Km로 국경이 직 접 본 벽찬 기쁨도 있었지만 북한 땅이 아닌 중국 땅을 밟고 가야하 는 분단조국의 아픔도 느꼈다. 단 통에서 백두산, 지안을 거쳐 굽이 굽이 흐르는 압록강을 따라 다시 단둥에 이르면서 주위 산들과 노랑 게 물들은 가을들판과 옥수수과 웅 기종기 모여 있는 조선족 농촌을 보면서 친숙한 우리나라 산촌과도 너무나 같았다.

해방 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회

### 樞密公派大宗會 제25차 정기총회 개최공고

본회종약 10조 1항에 의거 제25차(2013년도)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일 시 : 2013년 12월 19일(목) 오전11시
- 2. 장 소 : 한국자유총연맹자유센터(2층)(서울 장충동 2가 201-6)
- 3. 교통편 :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도보 15분
- 4. 안 건 : ①경과보고, ②2013년도 결산보고, ③2014년도 예산심의, ④기타토의사항

연락처 : 02-737-6423

樞密公派大宗會 會長 권혁昇

### 慶

### 제26회 청·장년회 전국문화축제

### 祝

자랑스러운 권문의 번영과 화합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전국 청·장년들의 문화축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오니 참가하시는 시군은 12월 31일일까지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일 시 : 2014년 4월 27일 10:00-16:00
- 장 소 : 뿌리공원 대광장 예정
- 연락처 : 청장년회장 권 용 기, 부회장 권중순, 권용수, 권용재
- 준비위원장 권선상, 사무국장 권영인
- 접수처 : 대전중친회 042-522-8751

※ 행사 책자에 광고 하실 분 접수받습니다.

### 동정



▲언론중재 위원회(위원장 권성)와 이화여대 로 스쿨(원장 전 효숙)은 8일 오후1시 30분 이화여대 국제 교육관에서 초상권 동의의 범위 및 후독 보도의 조정성 립에 관한 법적쟁점을 주재 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.



▲유엔에이 즈계획과 유 네세계관광 기구 스태프 단(이사장 도 영심(권정달 총재님 부인)은 최근 유엔세 계관광기구 스태프단 사무실 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 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동화 책 출판관련 업무협약을 맺 었다.



▲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 소재포 럽 사무실에서 '대한민국 수립 바로알 기'라는 주제로 제123차 목 요 공부방을 열었다.



▲권영세 안 동시장은 지 난 25일 오후 5시 하회마을 에서 열린 안 동사과명성 알리기 축제 개막식에서 안 동사과를 홍보하고 그 명성 을 이어가는 계기로 삼아가 타고 역설했다.



▲권영택 영 양군수는 지 난 24일 입암 면사무소에서 열린 '찾 아가는 군수 실'에 참석해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에 노 려해온 주민들을 격려했다.



▲권오현 삼 성전자 부회 장 등 핵심경 영진은 6일 서울 잠정동 신라호텔에 서 국내외 투자자와 애널리 스트 등 400여명을 초청, 8년 만에 "2013 삼성애널리스트 데이"를 열고 앞으로의 전략 과 비전을 발표했다.



▲효성그룹 이 13일 권오 용(58) 전 SK시장을 흥 보담당 상임 고문(사장 급)으로 영입했다.

가정마다 중보를 구독하여 뿌리를 알고 문화회합에 기여합니다.